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5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27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5. 27.(월)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와	
담당과장	최미애 과장(043-870-5510)	담당자	이지훈 연구사(043-870-5479)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믿을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 -

-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18년 5만대를 넘어섰고*, '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자,
- 2019년 5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 금일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하여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와 이지훈 연구사(☎ 043-870-54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